

1위부터 7위까지 4경기차 6월, 시작부터 세계 붙는다

올 시즌 KBO리그 순위 판도는 그야말로 혼전의 연속이다. 5월까지 1위 SSG 랜더스(27승18패)와 7위 키움 히어로즈(24승23패)의 격차는 4경기에 불과하다. 공동 5위 NC 다이노스(24승1무21패)와 두산 베어스(24승21패)는 SSG를 3경기차로 쫓고 있다. 6월의 시작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1~3일 주중 3연전에선 1위부터 공동 5위까지 6개 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결과에 따라 판도는 또 요동칠 수 있어 한 경기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롯데 자이언츠-키움(고척), KIA 타이거즈-한화 이글스(대전)의 결과에 따라선 중위권 판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그림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SSG(인천)

SSG와 공동 3위 삼성 라이온즈(26승21패)의 격차는 2경기다.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흐름은 최근 10경기에서 9승1패를 기록한 SSG 쪽이 좋지만, 아티 루위키와 박종훈 등 선발투수들의 부상으로 자칫 좋았던 흐름이 꺾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최근 10경기에서 4승6패에 그치며 초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SSG를 잡으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1일 선발 매치업은 SSG 월터 폰트, 삼성 백정현이다.

●KT-LG(잠실)

2위 KT 위즈(25승20패)와 공동 3위 LG(26승21패)의 게임차는 없다. 매 경기가 살얼음판이다. 앞선 3연전에선 LG가 2승1패 위닝시리즈를 거뒀지만, KT의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아 쉽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KT는 1일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중 최소볼넷(7개)을 기록 중인 고영표를 내세우고, LG는 좌투수 이상영을 내보낸다. KT는 지난 주 5경기 중 3차례나 연장 혈투를 치르고도 3승2패로 선전한 기세를 이어가길 원한다. LG도 지난 주 4승1패를 거둔 기운을 이어가야 한다.

●두산-NC(창원)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었던 두 팀의 자존심 대결이다. 올해는 나란히 공동 5위로 처져있지만, 선두와 격차가 크지 않아 언제든 반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일 선발 매치업은 두산 미란다, NC 신민혁이다. 미란다는 4월 24일 NC를 상대로 선발등판해 승리를 따냈지만, 6이닝 9안타 3볼넷 9삼진 5실점(4자책점)으로 안정감과는 거리가 있었다. 신민혁의 두산전 선발등판은 이번이 데뷔 후 처음이다. posterboy@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SSG, 밀리면 뒤집고 앞서면 지킨다

63%가 역전승…SSG, ‘뒷심의 팀’!

역전패는 7번뿐…최저 공동 2위 5회까지 뒤진 20G ‘승률 0.350’ SK시절 ‘뒷심 부족’ 오명 싹 날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은 체질개선에 즉효약이다. 효과는 어려움과 비례한다. 단일리그 체제인 KBO리그의 특성상 최약체가 단숨에 강팀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SSG 랜더스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중이다. 구단 명과 운영주체는 물론 뒷심까지 탈바꿈했다. 지난해 SK 와이번스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받던 ‘뒷심’이 올해 SSG의 강점이다.

●연승 후유증도 1경기면 충분한 저력

SSG는 5월까지 45경기에서 27승18패(승률 0.600)로 단독선두에 올라있다. 시즌 초반부터 지난해 9월에 처졌던 것과 판판의 모습을 보였는데, 화룡점정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된 파죽의 6연승이다. 연승 전까지 6위로 처졌던 SSG는 6연승을 발판삼아 선두까지 올라섰다. 1위부터 7위까지 좁혀잡아 붙어있기 때문에 연승 후유증 최소화가 필요했다. 자칫 연패에 빠진다면 6연승으로 벌어들인 승을 모두 날리며 다시 중위권으로 내려앉을 수 있었다. SSG는 27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6연승에 마침표를 찍은 뒤 다시



SSG는 올 시즌 27승 중 17승을 역전승으로 만들어내며 단독선두에 올라있다. 5회, 7회까지 뒤진 경기에서 승률 1위에 올라있다는 것은 SSG의 뒷심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다.

구단명, 운영주체, 뒷심까지 달라진 SSG				
	역전승	역전패	5회까지 뒤진 경기	7회까지 뒤진 경기
2020년 SK	27승(9위)	39패(1위)	6승1무68패(승률 0.081·10위)	5승78패(승률 0.060·9위)
2021년 SSG	17승(1위)	7패(8위)	7승13패(승률 0.350·1위)	4승15패(승률 0.211·1위)

3연승을 달리며 5월을 마무리했다.

비결은 뒷심이다. SSG의 올 시즌 27승 중 63%에 달하는 17승이 역전승이다. 경기 초반 승기를 상대에 빼앗기고도 어떻게든 뒤집어 마지막에 웃었다는 의미다. 반대로 역전패는 7차례로 최저 공동 2위다. 밀리면 뒤집고, 앞서면 지킨다는 의미다. 세분화하면 저력은 더욱 빛난다. SSG는 올 시즌 5회까지 뒤진 20경기에서 7승13패(승률 0.350)를 기록했다. 7회까지 뒤진 19경기에서도 4승15패(승률 0.211)다.

두 기록 모두 리그 1위다.

3할대 승률은 언뜻 적은 듯하지만, 5회까지 밀린 경기를 뒤집는 장면이 결코 흔하진 않다. 지난해 이 부문 1위 키움 히어로즈는 16승41패로 승률 0.281을 기록한 바 있다. SSG가 지난해 5회까지 뒤진 75경기에서 승률 0.081로 이 부문 최하위에 머물렀음을 고려하면 상전벽해다.

●이미 강한 SSG, 더 강해질 여지 충분



박동원

히 박동원의 진짜 가치는 체력에 있다. 포수 마스크를 썼을 때 타석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낸다. 포수 선발출장 시 타율은 0.330, OPS는 1.115에 달한다. 올 시즌 9홈런 모두 포수로 선발출장했을 때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포수 선발출장 기준 OPS는 리그 전체 1위에 해당한다.

박동원은 비시즌 이점후의 타격폼을 보고 연구했다. 팀은 물론 리그 최고의 타자

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선수로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맞지 않는 옷일 경우 훌훌 벗어던지는 용기는 아무나 낼 수 없다. 박동원은 “내가 이점후가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변화를 꾀했다. 홍원기 키움 감독은 “내가 타격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다”고 꺾꺾 웃으면서도 “박동원이 타격코치와 이야기를 자주 한다. 폴로스루, 준비 자세 등 조금씩 변화를 준 것으로 안다. 5월 타격 페이스가 워낙 좋아 본인은 물론 팀에도 고무적”이라고 칭찬했다.

키움은 이지영은 물론 외국인타자 데이비드 프레이타스까지 3인 포수로 1군을 운영 중이다. 3명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다. 하지만 박동원은 단점까지 상쇄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키움 안방의 버팀목으로 부르기엔 손색없는 이유다. ing17@donga.com

9홈런! 포수 박동원의 찬란했던 5월

4월 부진 딛고 포수 OPS 리그 1위

홍 감독 “타격폼 조금씩 변화 줬다”

2009년 1군에 데뷔해 통산 815경기를 치른 베테랑에게도 이 정도의 활약은 낯설다. 팀을 넘어 리그 최고의 공격형 포수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다. 박동원(31)은 키움 히어로즈 안방의 버팀목이다.

박동원은 5월 23경기에서 타율 0.392, 9홈런, 1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449를 기록했다. 월간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5월 홈런 1위다. 키움은 5월 한 달간 20홈런을 때렸는데, 절반에 가까운 9개가 박동원의 몫이다. 16일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데 이어 1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선 첫 3연타석 홈런을 날리는 등 꾸준했다.

리그 대표 거포들보다도 위력적인 5월이었다. 2위 그룹 양의지(NC 다이노스), 오재일(삼성 라이온즈), 최정(SSG 랜더스)은 나란히 7개다. OPS 역시 박동원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다. 월간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전혀 손색이 없는 활약이다. 박동원의 월간 최다홈런은 2019년 6월, 2020년 5월 기록한 6개인데 이를 훌쩍 넘어섰다.

4월 20경기에서 타율 0.196으로 고전했던 선수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활약상이다. 4월의 부진을 5월의 팽타로 만회했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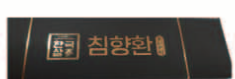
김오곤 원장이 원료선택부터 성분배합까지 직접했습니다.



한의학 김오곤원장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청정 뉴질랜드 산 녹용, 국내산 6년근 홍삼, 천종 산삼의 현대과학 결정체 산삼배양근, 러시아 자작나무 차가버섯 등 10여가지를 우리 몸에 좋은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습니다.

3개월분 90포 ~~2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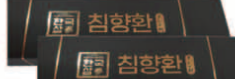
108,000원



침향환 10개 들어 1박스 증정

6개월분 180포 ~~480,000원~~

216,000원



침향환 10개 들어 2박스 증정

그런데 이 가격 믿기지 않으시죠?

많은 양의 원료를 한번에 구매해서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기력보강 #체력보강 #활력보강

전화문의



080-232-5866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국제종합물산)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테잎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딴소리 사실왜곡 꼭짜매!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정장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 (구입문의: 063-232-5855)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정: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만해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용처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 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니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면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

래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중언이 없으면 아예 계약 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딴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강의녹음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 비밀녹음시 유용)반복재생기능, 자체 스피커로 들을수 있는 기능, 녹음시간 표시기능, 삭제기능, 음량조절기능, 이어폰 사용가능, 유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불 특가세일 중이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063-232-5855 국제종합물산